

# 해남 백수피해 농민들 절규

## 잇단 태풍에 벼 60% 이상 수확 못해...실질 보상 촉구

잇따른 태풍이 몰고 온 강풍과 염해로 벼 알곡이 들어차지 않는 백수(白穗=벼 이삭마름) 피해를 본 해남 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대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실질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남군 북령, 송지, 북일, 산이면의 백수 피해 농민들은 20일 해남군청 앞 광장에서 정부에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농민들은 “연이은 3번의 태풍으로 바다를 끼는 해남지역은 수확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벼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돼 정부 대책에 기대를 건 농민들은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재해대책

법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백수 피해를 본 벼에 대해 영양제를 살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비축미 수매에 ‘점검 등외’를 신설해 구매해주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수확 자체가 어려운 벼는 사일리지 제조비를 ha당 4만원씩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경작면적 전체

의 50%가 피해를 봐야 지원받을 수 있는 대파비용은 말이 지원이지 실상은 50% 읊자와 자부담으로 돼 있다”며 정부 지원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영농자금뿐 아니라 피해농가의 모든 정책자금, 가계자금 이자 보전 등의 휴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남지역은 3차례 태풍으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60% 이상이 알곡이 차지 않는 백수 피해가 발생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해남 오구굿 무대

### 오늘 군민광장서 소리와 몸짓 공연

해남 오구굿(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고통)을 승화한 ‘제2회 소리와 몸짓 공연’이 20일 해남 군민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사)세계 민속음악진흥회 주최·해남군과 해남예총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판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무용 공연과 ‘해남 오구굿’을 주제로 한 무당굿 공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공연되는 ‘오구굿’은 해남에서 내려오는 전통 무굿의 하나로 강신무가 아닌 부모로부터 무당굿의 직을 물려받은 세습무가 주관하는 굿이다.

굿은 무당과 집사, 악사로 인원을 구성하며 액막음을 시작으로 명월 당기기, 길닦음 순으로 진행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2번째 를 맞는 ‘소리와 몸짓’ 공연이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은 가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구굿은 해남의 새로운 문화유산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무안 황토고구마 본격 출하

최근 무안군 현경면 들녘에서 황토 고구마 수확이 한창이다. 무안군은 올해 600여ha에서 황토 고구마 1만3000t을 생산해 18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외산담배 없는 담양, 23년 전통 지키자

최근 편의점서 판매 시작 청년회의소 재추방 운동

담양군은 죽녹원과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등 여러 유명한 관광지 외에도 외국산 담배가 없는 곳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이어왔다.

담양군에 외산 담배가 사라진 것은 23년 전부터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담양청년회의소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외산담배 없는 고장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오랜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6월부터 담양 터미널 주변의 한 편의점이 외산 담배를 취급하면서부터 다른 24시 편의점 등 9곳에서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의 전통을 깨고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한 편의점은 ‘담양을 방

문한 관광객 중 외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살 곳이 없다’는 것과 ‘지방세 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경제논리를 들어 외산 담배를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담양청년회의소와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최근 읍내에서 ‘외산담배 추방운동 캠페인’을 벌이면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담양군 청년회의소(회장 이금백)와 지역 사회단체가 손을 잡고 23년 만에 외국산 담배 추방운동에 나섰다.

지난 6월 외산담배 추방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담양지역 25개 사회단체와 연합해 ‘외산 담배 주방운동’을 다시 전개하고 있다.

이금백 회장은 “담배 몇 개 팔고 안 팔고의 문제를 떠나, 적어도 담양 사람이라면 담양에서 살고 있다면 지역 사회가 바라는 전통을 같이 만들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도리다”면서 “전 회원들이 단결하고 사회단체와 군민들의 힘을 얻어 불매운동을 전개해 해서라도 ‘외산 담배 없는 담양’을 다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jg@

## 전남도 음식문화 개선 정착 총력

### 도·시군 공무원, 외식업 관계자 간담회



전남도가 2012년을 ‘한식업소 딜어머기 실천 정착의 해’로 정하고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전까지 음식문화 개선 완전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19일 나주 종흥골드 스파에서 도·시군 공무원 및 한국외식업중앙회도지회(부) 관계자와 협동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F1국제자동차 경주, 국제농업박람회,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3대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세계인과 함께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음식문화 조기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국제수준의 음식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순 쟈동부 두 이은옥 대표의 음식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표, 목포시와 나주시의 국제행사 준비 상황 보고, 음식문화 개선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음식문화 개선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향후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맛과 서비스를 베풀어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장흥 용산농협 ‘올벼 쌀’ 추석선물 인기

장흥 용산농협(조합장 이경수)이 개발한 부드러운 ‘올벼 쌀’이 추석명절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흥 용산농협은 ‘올벼 쌀 전체 판매액은 2010년 1억5000만원, 2011년 3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5억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용산농협은 기존의 딱딱한 올벼 쌀보다 수분함량을 6% 가량 높여 씹어 먹기에 부드러운 올벼 쌀을 만들었다. 또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커피믹스 크기인 20g 낱개 소포장을 10개씩 둑어 상품화했다. 문의(080-699-5800)

올벼 쌀은 찹쌀을 찌고 말려 현미 상대로 가공한 것으로 단백질과 비타민B 등 영양가가 많아 아침식사 대용이나 간식용으로 제격이다.

또 현미에는 대장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다.

이경수 조합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화와 인터넷 주문 검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올벼 쌀이 국민간식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판촉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자 kykim@

## 신안군 내년도 신규시책 156건 발굴

### 과수 방풍사업·비상 통신망 구축 등

신안군은 주민편의 제공과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내년도 신규시책 156건을 발굴했다.

군은 지난 17일 영상회의실에서 실과소장 등 일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사 섬 희망가꾸기 신규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내년 신규시책으로는 ‘녹색에너지 자립 섬 실증사업’을 비롯해 ▲에코 힐링빌 프로젝트 ▲발달물 브랜드 육성 ▲친환경 노두길 물길 복원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과수 방풍사업 ▲재난 정전대비 비상 통신망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군은 정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인 ‘건전한 재정운용, 안정된 주민생활’에 맞춰 관례적으로 반복되는 비효과 사업과 예산낭비성 경상 예산을 줄여 신규시책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보고된 신규 시책 중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고, 효과가 높은 우수한 시책을 선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가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불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여 혼란

감을 갖고 각자 여러분의 민족을 위하여 혼란을 다하였습니다.

금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합〉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일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합〉

- 지역 : 광주군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평~300평, 월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거장
- 청고동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 가능한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개설 20개 대출 42천 매개기 8·9·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대도기 30억 보증금 7억 대로 1400만원
- 대도기 45억 보증금 6억 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지, 농지전용 원로, 매매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주군 도천동 자연녹지 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광장 창고용도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광주군 흥정면 창성리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49.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냉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

선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 첨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 파실본환영!

(8억 ~ 12억 계약 가능)

《매수자 대기중!》

원룸 파실분 대환영!

(매수자 대수 대기중)

《사실분도 문의환영》